

분위기 반전, 아기호랑이들이 나선다



한승혁



강한울



KIA, 투타 저조에 최근 4연패 최악의 위기

한승혁·강한울 등 젊은피로 분위기 쇄신

주중 넥센·주말 SK전...마운드 재정비가 관건

올 시즌 최악의 위기를 맞은 '호랑이 군단'이 대대적인 엔트리 변동을 감행했다. 5할 언저리에서 잘 버티었던 KIA에게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김병현을 시작으로 스티븐-양현종이 3회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서재응도 5회를 넘기지 못하면서 4연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어렵게 넘었던 5할 고지에서 내려와 '-3'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됐다.

약한 전력에 힘을 보태주던 수비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등 계속된 졸전으로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야심 차게 나선던 원전 9연전 길. 막내 kt에게 무기력하게 싹쓸이 패를 당한 KIA는 '엔트리 대거 변경'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1·2군에서 각각 6명씩 12명이 자리를 바꾸게 됐다. 올 시즌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는 좌완 심동섭과 함께 신창호·박준표(이상 투수), 내야수 이인행, 외야수 김원섭이 엔트리에서 탈소됐다. 그리고 7일부터 시작되는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 새로운 6명을 투입한다.

가 많이 가라앉았다. 야심 차게 나선던 원전 9연전 길. 막내 kt에게 무기력하게 싹쓸이 패를 당한 KIA는 '엔트리 대거 변경'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1·2군에서 각각 6명씩 12명이 자리를 바꾸게 됐다. 올 시즌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는 좌완 심동섭과 함께 신창호·박준표(이상 투수), 내야수 이인행, 외야수 김원섭이 엔트리에서 탈소됐다. 그리고 7일부터 시작되는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 새로운 6명을 투입한다.

제구 난조로 해매던 강승구와 한승혁을 필두로 대졸 신인 문경찬과 좌완 김준이 마운드에 새로 가세한다. 잠시 쉬어갔던 유격수 강한울도 다시 1군 무대로 돌아왔고, 빠른 발의 고영우도 1군 호출을 받았다.

새로 판을 짜게 된 KIA에게는 마운드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숙제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임준혁의 어깨가 가장 무겁다. 선발진의 두 축이었던 에이스 양현종이 어깨 근육통으로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스티븐을 제외한 선발진은 오리무중이다.

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서의 기세를 잊지 못했던 임준혁은 한 달만의 선발 재출격이었던 지난 1일, 한화를 상대로 5이닝 4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하며 시즌 4승에 성공했다.

선발로 올 시즌을 시작했던 임준혁이 지난 봄의 아쉬움을 털고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7월 6일 현재)

| 팀 | 승 | 패 | 무 | 승률 | 연속 |
|-------|----|----|---|-------|----|
| 1 삼성 | 46 | 31 | 0 | 0.597 | 3승 |
| 2 NC | 42 | 33 | 1 | 0.560 | 2패 |
| 2 두산 | 42 | 33 | 0 | 0.560 | 2패 |
| 4 넥센 | 43 | 34 | 1 | 0.558 | 2승 |
| 5 한화 | 41 | 36 | 0 | 0.532 | 3승 |
| 6 SK | 38 | 37 | 1 | 0.507 | 1승 |
| 7 KIA | 36 | 39 | 0 | 0.480 | 4패 |
| 8 롯데 | 36 | 42 | 0 | 0.462 | 1패 |
| 9 LG | 35 | 44 | 1 | 0.443 | 3패 |
| 10 kt | 25 | 55 | 0 | 0.313 | 3승 |

한편 KIA는 주중 목동에서 넥센과의 대결을 벌인 뒤 주말에는 문학으로 건너가 SK를 상대하며 원정 9연전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니 리, 98수 끝 첫 승

〈뉴질랜드 교포〉
 데뷔 7년만에 PGA 그린브라이어 우승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가 4명이 벌인 연장전 승부에서 승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을 장식했다.



대니 리는 6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올드화이트 TPC(파70·7287야드)에서 열린 그린브라이어 클래식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함께 13언더파 267타를 적어낸 케빈 키스너, 로버트 스트렘(이상 미국), 데이비드 헌(캐나다)과 연장전에 들어갔다.

대니 리는 비가 내린 가운데 17번홀(파5)에서 이어진 2차 연장에서 파를 잡아 보기에 그친 헌을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에서 태어나 8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대니 리는 어린 나이에 각종 아마추어와 프로 대회에서 우승, 유망주로 인정받은 선수다. /연합뉴스

광주 FC, 공격력 강화

브라질 까시아노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브라질 출신의 새 일군로 위기 탈출에 나선다.



광주 FC가 6일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광주 공격진에 힘을 보탬 브라질 출신 공격수 까시아노(Cassiano Dias Moreira)를 임대 영입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인터내셔널(세리에-A) 유스 출신인 까시아노는 최전방 공격수로, 184cm·79kg의 체격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플레이와 활발한 움직임이 장점이다. 스피드를 보유한 까시아노는 골대 앞에서의 집착력과 드리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공백이 생긴 광주 공격진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까시아노는 지난달 30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뒤 선수단에 합류했으며, 현재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8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첫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별종의 별'은 이승엽

프로야구 올스타 팬투표 1위

KIA, 베스트 12에 양현종 유입

삼성 이승엽이 '별 종의 별'로 빛났다. 2015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한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 '베스트 12' 24명이 최종 확정됐다. 투표기간 내내 1위 자리를 지켰던 '국민 타자' 이승엽은 최종 집계에서 10개 구단 120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63.86점(팬 투표 전체 1위, 선수단 투표 전체 3위)을 받으며 KBO 리그 최고 인기선수에 등극했다.

드림 올스타(삼성 SK 두산 롯데 kt) 지명 타자 부문 후보였던 이승엽은 팬 투표에서 153만47표를 획득, 역대 최고 투표수(중전 최다 2013년 LG 봉준근 117만5593표) 신기록까지 세웠다. 개인통산 9번째 올스타 베스트 라인업이다. 앞선 8번의 올스타는 1루수로 선정됐으며 지명타자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KIA에서는 에이스 양현종 홀로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나눔 올스타(KIA 넥센 NC LG 한화) 투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던 양현종은 총점 55.05(팬투표 122만7008표, 선수단 투표 211표)를 기록하면서 넥센 벤해켄을 따돌리고 올스타가 됐다. 드림 올스타 선발로는 SK 김광현(33.65)이 낙점됐다. 그러나 양현종이 5일 어깨 근육통으로 엔트리가 말소되면서 두 좌완의 맞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선수구 뽑은 올스타는 NC의 베테랑 이호준이었다. 지명 타자인 NC 이호준은 총점 55.95점을 받으며 나눔 올스타 1위에 올랐다. 총점에서는 이승엽에 이어 2위, 선수단 투표에서는 전체 346표 중 215표를 얻으면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드림 올스타 마무리 투수 삼성 임창용(45.15점)까지 라인업에 가세하면서 베테랑들이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다.

또 총점 51.60점의 드림 올스타 포수 롯데 강민호는 개인통산 8번째 베스트이자 2007년 이후 9년 연속(2014 갑종추천선수) 올스타가 됐다. 47.15점으로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 2위에 오른 두산 김현수는 개인통산 5번째 베스트, 2008년 이후 8년 연속(2008, 2011, 2012 갑종추천선수) 올스타전 무대에 오른다. 올해 신설된 중간투수 부문에서는 SK 정우람과 한화 박정진이 그 첫 주인공이 됐다. 삼성 구자욱과 나바로, 넥센 김민성과 김하성, NC 테임즈 등 5명은 생애 첫 올스타 베스트의 영광을 안았다.

KBO는 양 팀 감독(드림 올스타·삼성 류중일, 나눔 올스타·넥센 염경엽)이 추천하는 각 팀별 12명씩을 감독 선수로 추가 선정해 최종 명단을 8일 발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철한, 바둑리그 사상 첫 100승

최철한(30) 9단이 바둑리그 사상 처음으로 100승을 달성했다.



6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2015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최철한 9단은 전날 한국기원에서 열린 대회 9라운드 4경기에서 CJ E&M의 박승호 6단에게 20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100승 고지를 밟았다.

바둑리그가 본격 출범한 2004년부터 12년 연속으로 출전 중인 최철한 9단은 2006년 12승 2패, 2008년 11승 3패로 정규시즌 다승왕을 차지한 바 있다.

경기 직후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받은 최철한 9단은 "바둑리그 최초로 100승을 달성해 기분이 좋다"며 "아직 어린 만큼 더욱 열심히 해 200승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철한 9단은 이번 승리로 통산 996승(2무 437패)을 기록했다. 4승을 추가하면 조훈현, 이창호, 서봉수, 유창혁, 이세돌, 서능욱 9단에 이어 국내 7번째로 1000승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연합뉴스

즐거운 영화 산책

롯데시네마 구제일극장

- 1관 테미네이터제니스
- 2관 극비수사
- 3관 니의정친인양들/경상대학교 시몬진소녀들/소수의견
- 4관 테미네이터제니스
- 5관 주리키월드/테미네이터제니스(3D)
- 6관 연평해전
- 9관 주리키월드/학교괴담 저주의안령/리틀드래곤코코넛/리자루스
- 7관 세네카를 테미네이터제니스
- 8관 세네카를 연평해전/소수의견

단체 및 대관문의 : 070-4940-0523

콜롬버스시네마

| 현재상영작 | 금주개봉작 |
|-------------|----------|
| 연평해전 | 테미네이터제니스 |
| 주리키월드 | 극비수사 |
| 호비와엄마나무섬의비밀 | |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십 본인 1000원 할인
 현대M포인트 1인 2000포인트씩
 2인까지 4000포인트 사용
 (현대M 카드로 결제시 적용)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누르고-6-6-1-4-9(9)개별로 인사를 부르거나 누르세요

콜롬버스시네마

- 1관 테미네이터제니스
- 2관 연평해전
- 3관 연평해전
- 4관 연평해전
- 5관 주리키월드
- 6관 테미네이터제니스
- 7관 테미네이터제니스
- 8관 테미네이터제니스/호비와엄마나무섬의비밀
- 9관 극비수사
- 10관 호비와엄마나무섬의비밀 /모든 비밀스러운것들/학교괴담 : 저주의안령/미돈나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